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15호 현대불교
2009년 1월 21일(음력 12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25

마음의 불은 온통 천둥 번개가 쳐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리고 아수라를 좀 보세요. 사기범, 강도, 강패들이 모두 모여 있는 각 집단을 한번 보세요. 그게 아수라장이죠. 아수라 세계요. 인간계에는 우리 보통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천인, 하늘 사람도 여기 살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마음공부를 하셔서 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하늘 사람으로 사는 분들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내 집착을 다 버리고, 이 몸의 모든 것을 집착을 안 하고 모든 것을 함이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래서 벗어났어요. 벗어났으니 과거로부터 이 몸속에 있는 의식들이 자꾸 자기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작동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습이 있습니다. 습! 습을 떼지 못하면 다시 미(迷)해져서 인간으로 떨어진다든 애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요만한 것 하나도 다 거기에다가 맡기고 살아라. 그럼으로써 그것이 다 놓아 버린다. 하나에다 모든 것을 맡기면...

시봉 스님 스님, 마이크가 지금 안 나와요.

스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세요? 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잘됐네요. 뭐, (대중 웃음) 아, 갑갑한 속에서 불 줄을 알아야 되고... 나도 예전에요, 참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아, 참도 출 수 있고 무섭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요. 그런 것도 그렇고 '글쎄도 쓸 수 있구나. 그럼도 그럴 수가 있구나.' 하는 거요. 이거 때사를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보통 인간이고, 심안으로 보는 분은 조금 공부한 분이고, 법안으로 보는 분은 단계가 조금 더한 분이고, 또 불안으로 보는 분은 아주 부처님 단계까지 점점 가는 분이고, 혜안으로 보는 분은 아주 부처님 자리에, 다보탑에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남이 '너는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걸 부질없는 말로 듣고 그냥, 그걸 탓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게 크고 작고 이런 것도, 때로는 아주 작게 들어가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크게 들어가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조금 작게 들어가야 할 일이 있고 이렇게 두서가 없는 것이 진리인데, 이 공부인데 어떻게 정해 놓은 게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정해지실 않았기 때문에 부처라고 부른 겁니다. 부처님은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 거지 부처님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면 그건 부처가 아니죠.

지금도 안 나오니까, 이거?

대중 예.

스님 예, 그러면 이런 데서 또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신도들이 말합니다. 어느 신도는 와서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어느 신도는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그냥 있다 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천차만별이죠. 어떻게 하고 가느냐는 그런 문제들이요. 그런데 말합니다. 오히려 말한 분보다 안 한 분이 말을 다 하고 가요.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 말합니다. 다 듣고 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요즘은요, "예수재래요!" 하면서 봉투를 갖다가 주고는 합니다. 그게 나한테 오면요, 그러니까 성도 주소도 이름도 모르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온 것만 알죠. 인간은 그런 것이 없이는 안 되지만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보살이 응신으로 화해서 간다면 주소고 이름이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게 아주 멋진 공법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저 보이는 것만 제일인 줄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고 안 보이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마음속으로 한 건 누가 모르니까 모르는 줄 알고요. 내 마음을 넘겨봐, 보이지 않는 데서라도 자기 혼자라도 넘겨봐 써야 바깥으로 넘겨진단 말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넘겨봐 쓰지 않고 그냥 쥐어짜고 있다가, 남이 보는 데서만 돌아서서 허허 웃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중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버리세요. 한 철 살 놈의 거, 이래도 한 철 저래도 한 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그냥 버리고 사세요. 버린다면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도가 들었다 하더라도 '그 거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도 사람이니깐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걸 가 르쳐 드러서 안 되는 건데 내가... 이 마음이 그 강도와 풀이 아니게 될 때 비로소 강도도 회개를 하기 이전에 벌써 몸부터 조이리게 되는 겁니다. 달려들기 이전에, 그러면 선처를 배웁니다. '나 이 거밖에 없는데 가지고 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밤중에 왔어? 낮에 좀 와서 의논하지.' 하고요. 난 그런 예가 여러 번 있었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내 그 마음 아닌 마음이 그쪽 마음으로 결부가 되면요, 이제는 그런 짓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서 벌써 그렇게 하는 걸 거부하고 나가는 걸요.

영계성이나 암이나 이런 종류도요, 어디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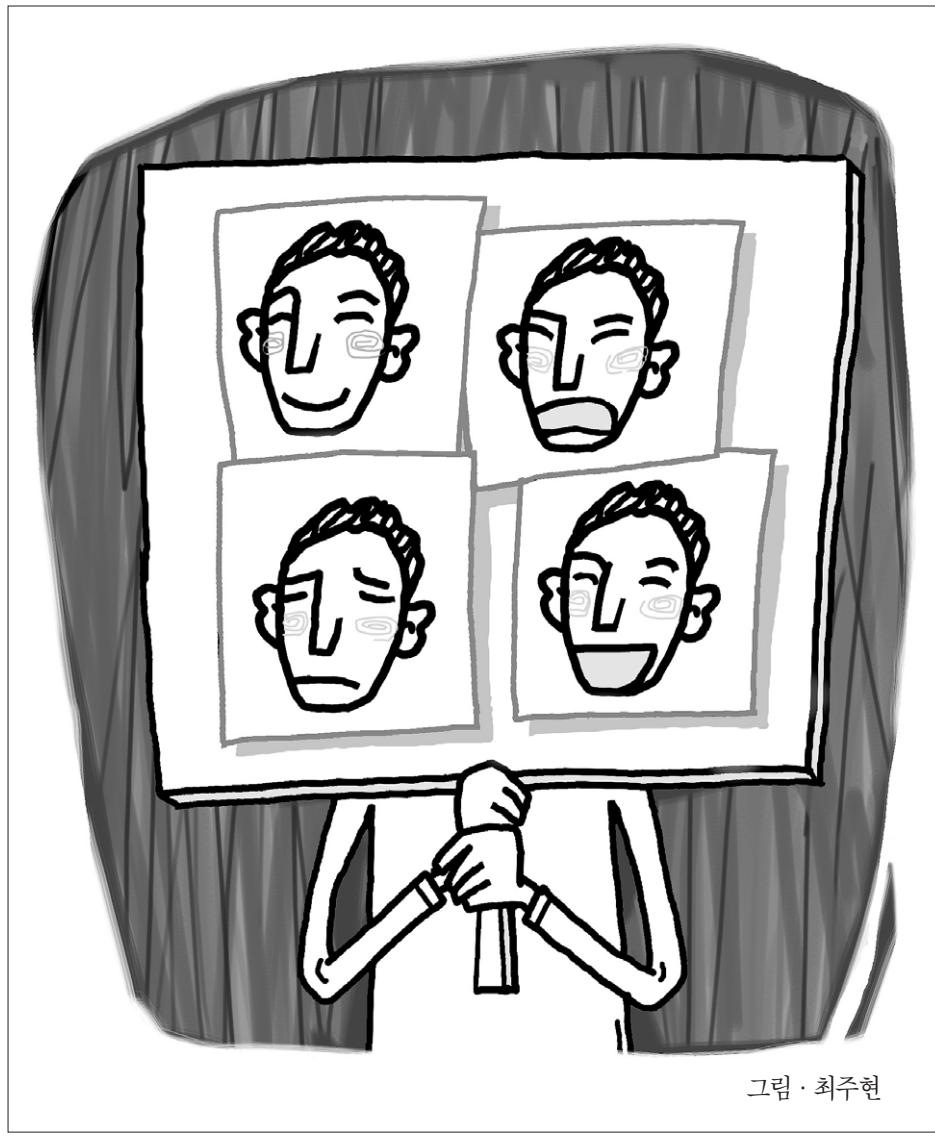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생기는가 하고 검토를 계속 했거든요. 검토를 해 보니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인과성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유전이 되는 거요.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서, 약한 인연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 몸에 주둔해 있다면 그 몸에서 발작을 일으키죠. 모두 잠이 먹고 이렇게 되니까 굳어지고 암이 되죠. 그런 거와 같이 몸속에 불어 있더라도, 아주 뭐, 거죽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거를 떼어 내니까 병원의 의사도 그것을 맘대로 조치해서 살릴 수가 있어요. 그걸 떼어 내지 않는다면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내가

공부가 모자라니까 못하지.' 이런 생각도 마세요. 이거는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마음이 그렇게 총증이 돼야 되는 거요. 자기를 자기가 믿어야 되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이 자기 대신 아파 줘니까, 죽어 줘니까, 또는 먹어 줘니까, 잠을 자 줘니까, 풍을 뉘 줘니까? 자기가 꼭 해야 돼, 그건. 자기가 움직여주는 거 자기가 해야지 대신 움직여주는 법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여지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얘기도, 움직여지게 되는 동기가... 자기의 근본, 그 생명의 근본이 아니라면 바로 자기가 움직여질 수도 없거니와 속의 인연들

도 모두 같이 멸종하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질 수가 없는 거요. 열렬하시다면 이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어떠한 의심이 가는 점이 있으면 그냥 자꾸자꾸 그렇게 차단해 버리고, 또 틀어막아 그냥 깨안을 건 견안고, 또 보낼 건 보내고 자꾸 이렇게 하세요. 그저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개별적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 안 되구요. 나를 이끌어 가는 나와 지금 이끌어 가는 나가 둘 아니게 항상 같이 수레바퀴 돌듯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전선줄을 말했는데, 줄 속에 알맹이 하고 껍데기하고 같이 돌아가지 어떻게 따로따로 돌아갑니까?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이렇게 켤 수 있고, 또는 따뜻하게 해 줄 수가 있고, 또는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 이 모두가 전력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니까? 그렇게 무수하게 살리고 있는 그 줄 하나가 말입니다. 하나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되지만 각각 집집마다 그 하나의 줄이 끊어져서 없으면 그 집은 하루 종일 추워서 살 수도 없죠. 원 근본 줄이 끊어지면요.

그렇듯이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건 체가 없고 어떤 개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하늘을 덮고도 남고, 들고도 남고, 이견 한계가 없는 것이예요. 마음이라는 건요. 그래서 마음이 쫓살 알맹이 같은 집을 지었다 하면 이 허공에 있는 모든 손들이, 생명들이 그 쫓살 알맹이한테 다 들어가도 또 남아요. 삼라만상을 다 한 주먹에다 쥐어도 쥐어진다든 얘기도, 그러면서도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게 되더라는 얘기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공부를 잘해서 재주가 있다면 여기 이 지구에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죠? 선신 세계에 가서 살 수도 있죠. 즉 말하자면 허공에 큰 문제가 생겨서 뭐, 후성이 날아왔다 이럴 때 그 후성이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후성으로 인해서 부딪치게 되면 사람들이 모두 죽으니까 내가 그 후성이 된다면 내가 바로 탄 데로 피해 가죠. 해치지 않게, 그렇게 무엇이든 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다면 어디고 가서 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요...

옛날에도, 형제처럼 아주 절친하게 지내는 스님들이 있었는데, 한 스님이 저번이면 나가는데 그 스님의 몸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스님은 그 스님이 어디를 갔는지 알아요. 아, 그 스님이 구름을 타곤 그냥 바짝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

26면으로 계속

佛記 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친목회

비 구 니 회

회 장 혜 연 (불곡사)
총 무 법 천 (불연사)
재 무 주 연 (연화사)

■ 연락처 : 연화사 043)213-3230 /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호명리 106-2번지

謹賀新年

한국불교미륵종의 대덕스님들에게 새해인사 올립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일기도 정진도량

연 화 사

주 연 (미륵종 비구니회 재무)

■ 주소 : 충북 청원군 북이면 호명리 106-2번지 (조정 광천수 입구)
TEL 043-213-3230 / H.P 010-8803-1198

佛記 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한국불교태고종 전북특별교구종무원

종무원장	호 산
자문위원장	향 산
부 원 장	도 일
종무국장	무 능
규정국장	원 공
사회국장	혜 연
교무국장	유 정
재무국장	단 정
호법원장	정 명
호법부원장	명 산
운영위원장	일 허

전북 전주시 인후동 1가 16-13
한국불교태고종 전북특별교구종무원
☎ 063)246-1666 / Fax 063)246-1667